

정읍 지황 가공품, 미국 수출 ‘첫 발’

옛 임금 진상품...약용 가치 높아
누룽지 등 10종 1억7천만원 규모
시, 가공상품 해외 수출 기념행사

정읍의 대표 특산물인 지황이 가공상품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해외 판로 개척의 첫발을 내디뎠다.

정읍시는 최근 감곡문화체육센터에서 유호연 부시장과 시 관계자, 가공업체,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 지황 가공상품 해외수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정읍지황을 활용한 가공상품의 미국 LA 수출을 기념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 미국 시장 수출 품목은 지황차, 숙지황 현미밥, 숙지황 현미스낵, 정읍쌍화차, 쌍화시리얼, 쌍화누룽지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제품 10여종이다.

지황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읍지황은 조선시대 임금께 진상됐다는 기록이 전해질 정도로 가치가 높아 오늘날에도 약용과 가공 활용가치가 큰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6일 정읍시 감곡문화체육센터에서는 열린 ‘정읍지황 가공상품 해외수출 기념행사’, 유호연(왼쪽 다섯번째) 정읍시 부시장과 시 관계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관계자 등이 수출물품 선적을 기념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은 1992년 지황 주산단지 지정된 이후 2015년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했으며, 2022년부터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나아가 정읍지황 농업시스템을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은 수출물품 선적 행사 자리에서 “정읍지황은 약제적 가치뿐 아니라 가공 상품으로서도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라며 “앞으로도 품질 고도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정읍지황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정읍 무성서원 토지, 57년 만에 ‘사적지’ 회복

시·유림·국가기록원 등 협업 성과
연말까지 피향정 등 지목 변경 추진

정읍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의 소유 토지 15필지, 6946㎡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했다. 이번 결정은 역사적 품격 회복 목적이 다.

무성서원은 1968년 12월 19일 사적 제166호로 지정됐으나 토지 지목은 당시와 동일하게 전, 대, 도로, 종교 용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했고 7월에는 무성서원 유림과 지목 변경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무성서원 과거 흑백사진 3장과 1968년 12월 문화공보부가 작성한 사적 지정 문서를 무성서원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관련 연구도 민관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업의 성과로 무성서원 유림의 지목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번엔 사적지로 공식 변경하게 됐다.

시는 올 연말까지 은선리 삼층석탑(보물 제167호), 파향정(보물 제289호), 천국사지 칠층석탑(보물 제309호), 감명관 고택(국가민속문화유산 제26호) 등 시 소유 토지 위 국가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사적지’ 지목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유적지 본질에 부합하는 지목 정비는 국가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서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남원시,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장관상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 등 공모사업 활용 정보 구축

남원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K-Geo 페스타’에서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공간정보 기반 정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국가 공간정보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 고정밀 수치지형도 제작, 시각장애인의 손끝 문화탐방 디지털 지도 구축 등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활용 가치 높은 공간정보를 구축했다는 호평을 얻었다.

시는 최근 국토지리정보원 주관 2026년 고정밀 전자지도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향후 첨단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장관상 수상은 남원시 공간정보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 행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치유의숲, 농촌 일손 돕고 환경 정화

‘추석·APEC 연계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동참



사회공헌활동차 농촌일손돕기와 환경정화활동 등 일과를 마친 국립 고창치유의숲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 고창치유의숲이 농촌일손돕기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 고창치유의숲은 정부가 추진하는 ‘추석·APEC 연계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에 동참, 전날 환경정화와 함께 농번기를 맞은 고창 주민들의 일손돕기에 나섰다

직원들은 농가가 정서되어 재배한 고구마 수확과 마늘심기를 비롯해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

해 쓰레기 수거에 나서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정종근 숲체원장은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 직원 모두가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함께 공감했다”면서 “앞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농촌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나눔·생생문화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의 기록’

12일까지 근현대기록저장소 남원다움관에서 순회 전시

남원시가 1일부터 12일까지 근현대기록저장소 남원다움관 1·2층에서 순회전시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총괄을 맡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순천대학교, 남원다움관이 공동 주관한다. 장흥, 광주, 순천에 이어 네 번째로 찾은 남원은 동학

농민군의 주요 전적지인 만큼 그 의미를 더한다.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작성된 총 185건의 문건으로 혁명의 사상적 깊이와 조직적 실천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가치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변화와 개혁의 기록·평등한 세상을 꿈꾸

다’는 불평등한 신분제와 수탈에 맞선 농민들의 열망을, 2부 ‘협치와 상생의 기록·관민상화를 그리다’는 협력과 자치의 실험을 보여준다.

3부 ‘자주와 향전의 기록·외세의 침략에 맞서다’는 외세에 맞선 항쟁을, 4부 ‘정의와 인권의 기록·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다’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씨앗이 된 혁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아카이브 존과 교육체험 존을 통해 관람객이 기록물을 직접 살펴보고 혁명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들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보편적 가치를 깊이 체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구강보건사업 ‘복지부 장관상’

고창군이 ‘2025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상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세부 및 시행계획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되는 것으로 전국에서 고창군을 포함한 3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고창군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사업 ▲어린이 충치예방(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페인 운영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노인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취약계층 대상 무료 구강검진 및 치료지원 ▲보건소 사업연계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했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물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